

# “데뷔는 서툴렀지만 내년은 다르다”

## ‘파란만장’ 2015 시즌 보낸 KIA 황대인

아직 끝나지 않은 루키의 길고도 험난한 2015시즌이다.

KIA의 내야수 황대인에게 ‘파란만장’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데뷔 시즌이다. 남다른 방망이와 배포로 눈길을 끈 고졸 루키는 예상보다, 기대보다 훨씬 늦게 1군 무대를 밟았다. 7월26일 롯데전 세 번째 타석 만에 프로 데뷔 안타를 때린 황대인은 두 번째 경기였던 7월28일 SK전에서는 ‘괴물’ 김광현을 상대로 멀티 히트를 기록하는 등 3안타를 몰아치며 무서운 신인의 등장을 알렸다. 그러나 종아리 부상 등의 여파로 5일 만에 신인의 첫 1군 나들이가 끝났다. 늦어진 신고식에는 부상이 있었다. 신인의 경험 부족이 빚을 키웠다.

황대인은 “신인이니까 열심히만 했다. 단순한 허벅지 근육통인지 알고 뛰었는데 시범경기 중반에 검사를 하니 근육이 찢어졌다고 했다. 올 시즌을 돌아보면 그게 제일 아쉽다. 부상만 아니었다면 경기도 더 뛰고 많은 경험했을 것인데 아쉽다”고 말했다.

부상을 넘어서니 수비 벽이 있었다. 경기고 시절 투수로 145km를 찍기도 했던 황대인이지만 야구판에서 흔히 쓰는 표현으로 ‘손이 말렸다’. 불안한 송구로 황대인과 코칭스태프의 고민이 깊어지면서 1군 호출이 늦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프로의 높은 벽을 실감하면서도 많은 것을 배운 황대인은 시즌이 끝난 후 비장한 각오로 또 다른 야구 인생을 준비했다. 장기적인 육성 측면에서 상무 입대가 준비됐고 황대인은 “올 시즌 많이 배웠다. 부족한 것도 느꼈고, 무엇을 연습해야 할지도 알았다. 처음에는 여러동절했는데 생각해보기가 빨리 군대를 갔다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다녀와서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사립들에게 작별인사를 고했다.

그러나 결과는 상무 낙방. 지난달 25일 대만 원터리그 참가를 위해 공항에서 출국을 준비하다가 들은 소식이었다. 군 복무에 초점을 맞춰 미래를 그렸던 황대인에게 청천벽력같은 소식이었다. 그의 고난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황대인은 숨 돌릴 틈도 없이 참가한 원터

리그에서 무릎 부상을 당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남은 원터리그의 목표는 당연히 ‘부상 없이 뛰자’이다.

황대인은 “원터리그에서 외국선수들과 야구도 하고, 다른 이들이 쉬는 시즌을 먼저 준비하니까 좋다. 부상 없이 마무리하는 게 원터리그의 각오다”고 말했다.

원전에서 새로 시작해야 하는 황대인, 험난한 한해였지만 잊지 못한 시즌이기도 하다.

**부상 모르고 뛰다 1군 늦어  
145km 던지던 팔인데  
불안한 송구로 고민 깊어져  
입대 계획도 물거품  
“올해 실패 바탕으로  
새로운 시즌 맞겠다”**

황대인은 “첫 홈런도 많이 기억에 남지만 만루에서 한화 권혁 선배님을 상대로 안타를 쳤던 게 가장 생각한다. 이기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팀 승리에 도움이 돼서 좋았다. 원래 자신감이 많은데 자신감이 더 좋아졌다. 감독님, 코치님께서 자신감을 많이 불어 넣어주셨다. 자신있게 치라고 하시고 격려를 많이 해주셨다”고 말했다.

새로 구상해야 하는 내년 시즌은 실패를 바탕으로 재구상을 할 생각이다.

황대인은 “아마추어에서는 이렇게 매일 야구를 해보지 않았다. 체력적으로 힘들었고, 그게 경기력에 영향을 미쳤다. 땀이 많이 나고 하니까 근육통도 많이 생기고 체력 관리 요령이 없었다. 내년에는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쓸 생각이다”며 “변화가 약하니까 이 부분도 보완해야 한다. 많이 보고 몸으로 해봐야 하니까 아프지 않고 캠프 잘 치르고 건강하게 새로운 시즌을 맞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태극 남자’ 얼음위 질주 계속된다

이상화, 11일 월드컵 4차 대회서 장흥과 격돌  
심석희·최민정, 中 쇼트트랙 금빛 레이스 도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향한 ‘태극 남자’들의 질주는 멈추지 않는다. 2015-201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 월드컵 시리즈에서 화끈한 ‘금빛 질주’를 펼치는 ‘태극 트리오’ 이상화(26·서울일번·스피드스케이팅), 심석희(18·세화여고), 최민정(17·서현고·이삭 쇼트트랙)이 이번 주말 또다시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빙속 여제’ 이상화, 장흥과 ‘맞수 대결’ = 올림픽 2연패에 빛나는 이상화는 지난 시즌 막판 무릎 통증 때문에 잠시 슬럼프를 겪었지만 이번 시즌을 앞두고 캐나다에서 전지훈련을 펼치며 전성기 때 기량을 되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이상화는 지난달 월드컵 1차 대회 500m, 2차 레이스를 각각 ‘금빛’과 ‘은빛’으로 물들이며 여제의 자존심을 세웠다. 월드컵 2차 대회에서 은메달 1개로 다소 부진했던 이상화는 월드컵 3차 대회 500m 1, 2차 레이스에서 모두 우승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렸다. 다만 월드컵 3차 대회에는 지난해 소치올림픽 1,000m 금메달리스트이자 이번 시즌 두 차례 월드컵에서 금메달 3개를 따낸 장흥(27·중국)이 출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상화는 오는 11~13일 네덜란드 헤어렌베인에서 열리는 월드컵 4차 대회에서 장흥과 자존심 대결을 펼치게 될

다. ◇심석희·최민정 ‘최강 투톱 시너지’ = 심석희와 최민정은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쌍두마차다. 이번 시즌 한국 여자 대표팀이 월드컵 시리즈에서 따낸 개인 종목 금메달은 모두 심석희와 최민정이 합작했다. 지난 여름 ‘지구력 강화’와 ‘선두 유지’ 훈련에 집중했던 심석희와 최민정은 이번 시즌 월드컵 1~3차 대회 개인종목에서 금메달 8개(심석희 3개·최민정 5개)를 합작했다. 계주까지 합치면 최민정은 2, 3차 대회에서 두 대회 연속 3관왕에 오르는 기쁨도 맛봤다.

오는 11~13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쇼트트랙 월드컵 4차 대회에서도 ‘최강 투톱’의 금빛 레이스는 이어질 전망이다. 최민정은 월드컵 4차 대회에서 500m, 1,000m 종목에 나서고, 심석희는 500m와 1,500m 2차 레이스에 나설 예정이다. 출전 종목은 현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다는 게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설명이다.

최민정은 월드컵 2차 대회 500m에서 금메달을 따낸 바 있다. 하지만 심석희는 3차 대회 500m 결승에서 실격당하는 아쉬움을 맛봤다. 팬들은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최강 투톱이 500m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투는 장면을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오승환 소환’에 일본도 들쭉

매체 “은퇴 위기” 등 다뤄

일본프로야구에서 활동했던 오승환(33)이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르자 일본도 큰 충격에 빠졌다. 일본 닛칸스포츠는 8일 한국 언론을 인용해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오승환이 은퇴 위기에 몰렸다”며 “한신 타이거스는 2년 계약에 마친 오승환의 잔류를 위해 노력했지만, 협상 중단 가능성이 급부상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한국 언론은 오승환이 해외 불법 도박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고 보도했다. 한신은 오승환에게 잔류 여부에 대한 답변을 이번 주말까지 달라고 했는데, 잔류가 결정되더라도 앞으로 수사에서 유

죄가 드러나면 파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오승환이 최근 해외 원정 불법 도박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은 입장용과 가까운 사이라는 점에도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관련 사진도 오승환이 지난 2월 친정팀인 삼성 라이온즈 스프링캠프장을 방문했을 때 입장용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닛칸스포츠는 “오승환의 삼성 시절 동료였던 입장용은 마카오에서 불법 도박을 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오승환 역시 의혹을 받았지만, 에이전트 측은 ‘도박 행위와는 없다’라고 부인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국민 타자’ 이승엽 10번째 ‘황금장갑’ 수상...KIA 3년 연속 ‘빈 손’

##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

‘국민 타자’ 이승엽(삼성)이 역대 최다인 10번째 골든글러브를 품에 안았다.

이승엽은 8일 서울 The-K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5 타이어뱅크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지명타자 수상자로 호명됐다. 이승엽은 358표 중 246표를 받아 롯데 최준석(77표)과 NC 이호준(35표)을 제쳤다.

지난해 지명타자 부문에서 자신의 9번째 골든글러브를 차지하면서 역대 최다 수상자가 된 이승엽은 이번 수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승엽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7년 연속 1루수 자리를 독점하면서 최다 연속 수상 기록도 가지고 있다.

외국인 선수들의 최다 수상 기록도 만들어졌다. 2015시즌 MVP에 빛나는 NC 에릭 테임즈가 강직 박병호(넥센)를 압도하면서 다시 한번 승자가 됐고, 팀 동료인 에릭 해커는 투수 부문에서 황금 장갑을 차지했다. 삼성의 아마이코 나바라도 최고의 2루수로 선정되면서 역대 최다인 3명의 외국인 선수가 골든글러브의 주인공이 됐다. 1999년과 2005년 두 명의 외국인 선수가 골든글러브를 가져간 게 역대 최다 기록이었다.

2015시즌의 패권을 차지한 두산은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도 잔치를 벌였다. ‘안방마님’ 양의지, 유격수 김재호, 외야수 김현수가 수상자로 단상에 올랐다. 양의지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소감을 밝혔고, 김재호는 188표를 얻으면서 강력한 수상 후보였던 넥센 김하성(110표)을 누르고 유격수 자리의 주인공이 됐다. 김현수도 2010년 이후 5년 만에 다시 황금장갑을 거머쥐었다.

각 팀을 대표하는 쟁쟁한 스타들이 격돌한 외야에서는 김현수와 함께 NC 나성범 그리고 kt 유한준이 골든글러브를 품에 안았다.

‘이적생’ 신봉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

은 선수들도 있었다. FA를 통해 넥센에서 kt로 이적한 외야수 유한준은 생애 첫 수상으로 새 팀 kt의 첫 골든글러브 수상자가 되는 영광까지 누렸다.

올 시즌 ‘사자군단’의 캡틴으로 활약했던 박석민도 삼성 선수가 아닌 NC 선수로 단상에 섰다.

박석민은 “지금까지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신 삼성 팬분들께 감사 드린다. 류중일 감독님께 감사 드리고 죄송하다. 김경문 감독님 밑에서 배운다는 실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데케이호텔에서 열린 2015 타이어뱅크 KBO리그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부문별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 지명타자 부문 삼성 이승엽, 3루수 부문 NC박석민, 2루수 부문 나바로를 대신해 삼성 김용국 코치, 유격수 부문 두산 김재호, 외야수 부문 NC 나성범 대신해 박민우, 외야수 부문 두산 김현수, 포수 부문 두산 양의지, 외야수 부문 kt 유한준.

/연합뉴스

이 있다. 많이 배우고 그라운드 안팎에서 모범이 되는 선수가 되겠다”며 눈물의 수상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삼성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황금장갑(59개)을 보유하고 있는 ‘호랑이 군

단’은 3년 연속 빈 손으로 돌아섰다. 평균 자책점 1위 양현종과 30세이브에 빛나는 윤석민이 투수 부문, ‘모범생’ 브렛 필이 1루수 후보로 이름을 올렸지만 수상에는 실패했다. KIA는 2011년 MVP 윤석민을

앞세워 2루수 안치홍, 외야수 이용규(현 한화) 등 3개의 골든글러브를 차지하기도 했지만 2012년 이용규 이후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